

김별아의 '문학과 삶'



'지방대생'인 젊은 벗에게

그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쏟아지는 가을비가 서럽다. 창밖의 푸르른 풍경에 그대의 눈빛과 웃음이 스쳐 지난다. 청춘을 무기로 더 쾌기발발할 수 있는 눈빛과 생기를 가득 찬 활짝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대가 조금은 주눅 든 눈빛, 조금은 조심스러운 웃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그대를 '지방대생'이라고 부른다.

심지어 더 모욕적이고 노골적인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한다. 그 이름들은 그대를 '패배자'로 낙인찍고 싶어한다. 무능하고 나태하다고 조소한다. 그래서 그대는 점점 더 주눅 들고 조심스러워진다. 고작 스무 살에, 그토록 아름다운 스무 살에.

하지만 그대, 젊은 벗이여!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의 성적표, 수학능력평가 점수표의 석차는 있어라. 잔인한 서열주의가 매겨놓은 등수와 방향도 없이 강요되던 억지 공부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려라. 그대의 시험 성적이 60명 중의 40등이었다고 해서 인생의 등수까지 60명 중에 40등일 수 없다.

1980년대 후반 개봉된 영화의 제목처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것은 단순히 말치레만이 아니다. 언젠가 "차라리 행복이 성적순이었으면 좋겠다"고 부르짖

었던 헛똑똑이 인생 선배의 경험적 진실이니 믿어도 좋다. 스무 살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나이이다. 새로운 싸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험이 비로소 시작된다.

그럼에도 그대는 의심의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비교 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채찍과 담금으로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스스로조차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이미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왔기에 취업 시장은 물론 사회가 얼마나 그대를 냉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

세상은 꿈을 찾으라고 한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이를 악물고 '스펙'을 쌓아도 그대는 번번이 1차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한다. 실력을 보여주려 해도 보여줄 기회마저 없다. 팽팽한 명문대생들도 거들 고배를 마시는 취업 전쟁터에서 그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예 없는 듯하다.

그러하여 그대는 '학벌 세력'이라는 백안시를 감수하면서 편입 시험을 준비하고,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무원

시험에 적성과 상관없이 도전하기도 한다. 그대의 청춘은 이러한 발버둥과 좌절로 점철된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대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입가의 웃음은 사라진다.

좌절한 그대, 실의에 빠진 그대,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그대에 대한 연민과 애정에서, 나는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하겠다. 무한 경쟁의 학벌주의 사회에서 그대가 불리한 첫 패를 가진 것은 분명하다. 평가자들은 때로 학벌을 성실성과 능력의 척도로 간주한다. 그들은 그대를 모르고 그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빈약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그대가 일을 잘 하면 "웬일이 지?"하고 의심하고, 그대가 일을 잘 못하면 "그럴 줄 알았지!"라고 안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 23세가 평균 수명이었던 18세기 파리에서라면 그대는 이미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 있었겠지만, 평균 수명 90세를 눈앞에 둔 21세기의 한국에서 그대는 앞으로 60여 년을 더 살아야 하고 40여 년을 더 일해야 한다

학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견뎌내야 하는 10년은 그 중의 잠깐일 뿐이다. 10년이 지나면 그대에게 불어닥치던 꼬리표는 사

라진다. 그대 그대가 어떻게 평가되는가는 온전히 그대가 10년을 어떻게 견뎌냈는가에 달려 있다. 헨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헨디캡마저 뛰어넘을 만큼 당당하다면, 땀과 눈물은 반드시 보상한다. 아무리 잔인하고 교활한 학벌주의 서열주의라도 더 이상 그대의 삶을 침해할 수 없을 것이다.

희망된 꿈은 독이러지만 설부른 절망은 삶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한다. 단번에 큰 보폭을 내딛을 수 없다면 잔걸음으로 바지런히 따라잡고, 의지할 학연과 연줄이 없다면 오로지 내 땀에 의지해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때로 그대를 외롭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과 불평등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대의 외로움이야말로 그대를 진정으로 성숙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 된다. 청춘의 가난과 시련에 너무 일찍 지친 그대에게 니체의 말을 빌려 응원을 전한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는 '지방대생'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모욕할 수 없는 고고한 자존의 '청춘'이다. 젊은 벗이여, 부디 건투를!

<소설가>

중고칼럼



이재술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영화 포스터의 실루엣은 영화 제목 '피에타'가 성모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리위친 아들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조각상 '피에타'에서 빌려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한 사람들의 만행을 통해서 오히려 비정한 사람이 아닌 비정한 사람을 양산한 자본주의 사회를 고발하는 이 영화는 그 타이틀 '피에타'를 통해 메시지의 깊이를 더했다는 느낌이 든다.

피에타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둔 아들

피에타, 슬픔을 잊은 새로운 세상

예수의 시신을 보듬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묘사하고 있다. 세상에서 자식 잃은 어머니의 슬픔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러나 마리아의 아들 잃은 슬픔은 자식을 잃은 여는 어머니와 같지 않다. 마리아는 아들이 이승에서 자승으로 가는 길목, 십자가에 못박힌 채 고통에 신음하며 돌아오는 아들의 마지막 숨소리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처절함을 겪었다. 고통에 젖들린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들을 위해 쳐다보는 것 외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고통은 어떤 상상력으로도 그려낼 수 없다.

마리아는 이 처절한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후 마리아의 삶, 아들의 뜻을 따르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한 성모님의 삶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마리아는 아들 잃은 슬픔을 넘어서는 길은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한 아들에 대한 원한과 보복이 아니라 아들이 추구했던 길, 기득권층의 탐욕으로 가득찬 세상을 거부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 길을 걸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 빌라도와 로마병사는 당시 부조리한 사회의 폭주각시였음을, 그들 역시 부조리한 사회의 하수인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근래에 발생한 몇몇 성범죄에 의해 촉발된 여론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형제도와 집행에 대한 높아진 지지, '화학적 거세'에 이어 '물리적 거세' 법안 발의 등으로 이어지는 과열된 분위기에서는 염려를 지어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는 의협심 많은 우리 정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사회문제를 보는 냉정하고

냉철한 시각 역시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정한 위료가 될 수는 없다. 동시에 극형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그동안의 조사와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아무리 끔찍한 범죄의 범법자라 하더라도 그 역시 이 사회와 우리가 낳고 기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사회로부터 사람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이 사회의 사생아란 점이다. 출생과 연루된 불우한 연인과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이미 수많은 미래의 범법자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자에 피해자도 없는 그래서 슬픔과 증오가 없는 사회를 구현하는 길은 더 이상 사생아를 출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확대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향유하는 보편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목포가톨릭대학교 교수·신부>

기고



조유리

오는 12월 19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소외계층 없는 유권자 중심으로 과거 선거와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시 재외선거가 도입된데 이어 오는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최초로 선상투표가 도입된다.

그동안 선원들은 국방과 납세, 병역 등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투표 당일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적극 참여하세요

1988년 선상 부재자투표가 처음 제안된 뒤 2005년과 2009년에 국회 분회의에 상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화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정취권의 사정으로 제도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선상 투표제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특정 지역에 유리한 제도라는 정치적 측면도 고려된 셈이다.

그러나 일본은 물론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에선 이미 팩스나 우편을 통한 투표가 시행되고 있다.

전국 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09년 중앙선관위와 함께 모의실험을 통해 월드팩스의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그동

안 계속 정치권을 압박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 선상 부재자투표가 법제화됨에 따라 외국 항해 중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외항선상선 7783명, 해외취업선 3499명, 원양선선 2053명 등 모두 1만3543명이 올해 대선부터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선상부재자투표 신고 대상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다. 올해 현재 2134척에 1만3534명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선상 부재자투표를 원하는 선원들은 오는 11월21일~11월25일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구·시·군에서는 이를 대상으로 11월26일 선상부재자신고인 명부를 최종 확정하게 되며, 12월10일까지

선박의 선장에게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해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선상투표를 하게 된다.

선상부재자 투표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 의원선거에만 도입된다.

일반에서 시행하는 선상부재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선상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재자 투표(거소투표) 방법으로 투표용지에 날인한 후 팩시밀리를 이용해 시·도선관위에 전송하며 자동으로 종이팩스가 씌워져서 수신되는 '월드팩스'로 투표용지를 수신하는 방식이다.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원들이 앞으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원들의 권익 신장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원을 위한 국가정책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상투표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한민국 선원들이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투표권을 행사,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우윤순·광주시 동구 서석동

시설

J프로젝트 10년째 표류, 정부의지 보여라

전남도의 핵심현안인 서남해안기업도시(이하 J프로젝트) 조성사업이 10년째 지지부진하다. 시행사와 정부 부처간 법적 정소, 땅값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1455만 평에 조성되는 J프로젝트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나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검토 작업이 시작돼 2004년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이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국책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6개 지구로 추진됐던 J프로젝트는 조송·송촌지구가 백지화된데 이어, 삼호·구성·삼포·부동지구 등 남은 4개 지구도 걸들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면적을 개발할 만한 대기업 참여가 없는 것이다. J프로젝트는 도시조성비만 2조3900억 원에 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첫 삽을 뜬 송촌·부동지구에도 롯데, 포스코 등 13개 대

기업이 참여한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간척지를 사들여 사업을 해야 하는 까닭에 땅값 문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삼호지구는 지난 2010년 12월 감정평가를 해 부지가격이 제시됐음에도 농어촌공사가 거부해 아직껏 재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농어촌공사의 이런 행위는 국가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으로 동니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의 발목 잡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J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전남도의 현안사업이다. 정부와 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전남도 또한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미봉책이 부른 위기의 '소파동'

추석을 앞두고 한우값 폭락에 반발한 전남지역 한우 사육 농민 1400여명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사료값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한우값 하락으로 농가들이 파산 직전에 있는 만큼 한우산업 회복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암소까지 평균 가격이 2010년에 비해 54.1%나 폭락했지만 송아지 생산에 드는 비용은 13%나 올라 한우 농가들이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사료값은 2년 전에 비해 16.2%나 오른데다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소를 키울수록 빚만 늘어난다고 한다. 송아지를 2년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면 115만 원의 손해를 난다니 이런 기가 막힐 일 어디에 있는가.

소값이 이렇게 폭락하도록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값 폭락 조짐은 몇 년 전부터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값싼 외국산이 밀려들어 오면서 한우 소비가

둔화되는 데도 농가의 사육두수를 조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소값 안정대책으로 군남용 수입 쇠고기를 전량 한·육우 고기로 대체하기로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우값이 폭락했으면 소비자가격도 떨어져야 하지만 시장 음식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여전히 예전 가격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한우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가지다. 무엇보다 사료값 폭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가격을 내리는 일이다. 또 축협 사료공장의 생산 확대와 함께 축산농가에 볏짚 등 조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사육두수 조절 역시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땀 흘린 처방이나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축산업 자체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게 뻔하다.

無等鼓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책(고서)을 소장한 문중은 남평문씨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분리 인흥마을에는 '인수문고'라는 남평문씨 문중문고가 있다. 인수문고가 소장한 장서는 8500여 책으로 1책이 2~3권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권에 달한다. 영남학파의 총본산이라 불리는 도산서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양이다.

문(文)씨들의 책사랑은 "독서와 학문을 하루도 폐하지 말 것, 책을 열람할 때 더럽히거나 찢지 말 것, 가벼이 빌려주지 말며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적어둬 돌려받을 것, 7월 초에 햇볕을 쬐어 좀과 습기를 막을 것"이란 전수 규약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남평문씨의 태자리가 바로 나주시 남평읍 종림리다. 지식천연 드물고 강변에는 높이 6m, 폭 5m의 커다란 문바위(文岩)가 있다. 남평문씨 시조 문대상의 탄생 설화가 깃든 곳이다.

1731년에 쓰인 남평문씨 창간보인 '신해보'에 따르면 472년(신라 자비왕 15년) 남평현 동쪽의 '장자지'라는 연못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위에 있

는 돌상자에 피부가 맑고 용모가 아름다운 갓난아이가 들어 있었다. 기이하게 생각한 현감이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불과 5세에 문사(文惠)에 통달하고 총명해 문(文)을 성으로 삼게 하고 이름을 다성(多省)으로 지어주었다고 한다.

남평문씨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고려 말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 온 문익점이다. 요즘에는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씨와 통일교 총재로 알려진 타계인 문선명씨가 있다.

문재인씨는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방문지로 이곳을 찾아 조상의 유골을 받은 탓인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문선명 총재는 한때 남평일대를 통일교 성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11월 문바위에 '문안각'이란 정자를 세운 것도 이런 계획의 일환이었다.

최근 뉴스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을 보면 신해보에 따르면 472년(신라 자비왕 15년) 남평현 동쪽의 '장자지'라는 연못가에 큰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위에 있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